

SEOUL ECONOMIC BULLETIN

경제통통

경
제
통
통

FOCUS

- 소상공인 · 중소기업에 1조원 저리로 융자지원한다

ZOOM IN

- 될 성부른 청년창업기업 민간투자사와 연결해준다

HOT ISSUE

- 서울시 기술교육원, 무료 직업훈련생 3,617명 기술전문가로 키운다
- 마을경제 활성화 도와줄 마을기업 25개 선정, 밀착지원 펼친다

김가영(서울시 경제진흥실 gykim@seoul.go.kr)

| 소상공인 · 중소기업에 1조원 저리로 용자 지원한다

서울시는 서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‘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’을 저리로 지원한다. 특히 신속한 경제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 육성자금 중 60%에 해당하는 6,000억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조속한 경기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이다.

· 시설 1천억원 · 경제활성화 6,850억원 · 창업기업자금 1천억원 등 다각도 지원

올해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,000억 원, 시중은행협력자금 8,000억 원으로 구성되며,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▲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1,000억 원 ▲재해피해기업 자금 200억 원 ▲경제활성화 자금 6,850억 원 ▲일반 창업기업 자금 1,000억 원 ▲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 100억 원 등이다.

· 시설자금 3.5%·영세자금 3%로 금리 조정, 전년대비 0.5% ↓, 저금리 기조 반영

금리는 시중 저금리 기조를 반영,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시설자금과 영세자금 금리를 지난해보다 각각 0.5%씩 인하한 시설자금 3.5%, 영세자금 3.0%로 조정했다. 시중은행협력 자금의 이차보전 금리는 1~2.5%로 책정했다.

· 영세자영업자 자금 300억으로 증액, 초기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500억 신규 편성

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 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을 전년보다 100억 원이 늘어난 300억 원을 지원 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계형 업종에 집중하고, 기술력은 갖췄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립 초창기 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도 신규로 500억 원을 편성해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.

한편 서울시는 향후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가능성도 열어둬 내수경제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유동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기조도 유지한다.

| 될 성부른 청년창업기업 민간투자사와 연결해준다

서울시가 벤처투자사 및 엔젤투자자와 손잡고 우수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에 투자금을 지원, 성공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한다. 젊은 창업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생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탄탄한 창업투자생태계 기초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.

· 서울시, 서울창업기업 투자설명회 3월 개최, 참여희망기업 모집

서울시는 오는 3월 중순, 우수 청년기업과 민간투자기관을 연계해 자금을 지원하는 「2015 서울창업기업 투자설명회 : 데모데이」를 개최한다. 이번 투자설명회는 ‘투자 연계형 창업지원사업’의 일환으로 설명회 당일 창업기업들은 민간투자사 앞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해 투자를 유치하고, 서울시와 투자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지원을 약속한다.

· VC대표·엔젤 등 민간투자사가 전문성·시장성 등 평가, 10팀 설명회 참가

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되고,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되도록 투자의향을 밝힌 민간투자사 대표 8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▲경영진의 전문성 ▲기술성 ▲시장성 ▲사업성 ▲사업아이템의 수익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현장에서 즉시 투자의향금액을 제시할 예정이다.

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팀은 전문가로부터 집중컨설팅 등을 거친 후 3월 중순 투자설명회 당일 사업설명서를 발표한다.

· 투자의향 금액 상위 5개팀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입주, 서비스와 창업자금 지원



또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의향금액을 많이 제시받은 상위 5개 팀은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 1년간 입주해 전문가 컨설팅 등 서울시 창업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되며, 해외진출 지원 및 제품 상용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업자금(팀당 1000만원)도 지원받게 된다.

| 서울시 기술교육원, 무료 직업훈련생 3,617명 기술전문가로 키운다

서울시 기술교육원이 기술전문가로 거듭날 상반기 직업훈련생 3,617명을 2월 20일까지 동부중부북부남부 4개 기술교육원에서 모집한다.

이번 상반기 모집에서는 정규과정(주간 1년, 야간 6개월) 2,917명과 베이비부머, 재직자 등 단기과정 700명 등 총 3,617명의 훈련생을 선발하며 만 15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.



· 국가기간산업 플랜트용접 및 베이비부머위한 조경관리학과 신설, 청년과정도 모집

특히 올해는 국가기간·전략산업인 ‘플랜트용접과정’ 과 베이비부머세대가 쉽게 취·창업 할 수 있는 ‘조경관리학과’ 를 신설했고, 패션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‘패션산업기사과정’ 도 개설해 역량있는 인력으로 키울 계획이다.

또 ▲그린카정비 ▲네트워크서버운영관리 ▲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등 청년희망디딤돌과정에서도 만 15세~35세 청년 245명 모집한다.

· 정원 30% 저소득층 우선선발, 훈련비 무료, 자격증 취득·취·창업서비스 제공

응시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선발되면 수강료, 교재비, 실습비 등 교육훈련비는 무료다.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도 지원받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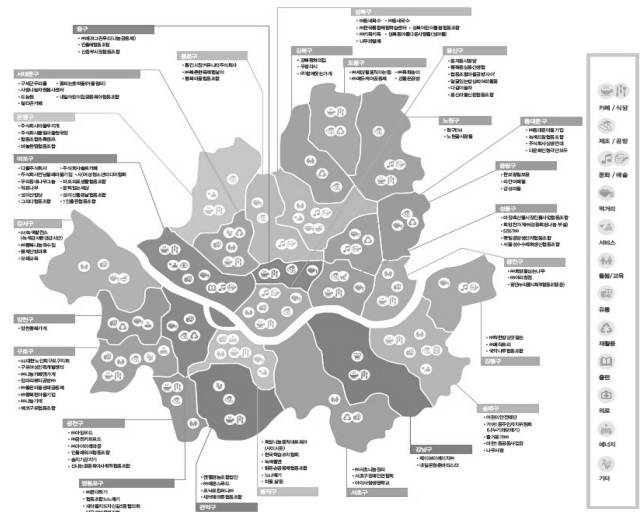
· 교육원, 인문학교육·교수기업전담제·기업채용약정 등 교육내실과 취업을 높이는 중

현재 서울시기술교육원에서는 직업 훈련 외에도 인문학교육, 전문직업상담사 취·창업상담 은 물론 교수가 관련분야 우수 기업을 직접 발굴해 졸업 후 바로 해당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돕는 교수기업전담제와 기업채용약정으로 교육내실도 기하고 있다.



| 마을경제 활성화 도와줄 마을기업 25개 선정... 밀착지원 펼친다

마을기업 지도 "서울시 마을기업이 서울을 바꿉니다!"



서울시가 지역공동체를 재
생하고 지역주민의 소득과
일자리를 늘려 마을경제 활
성화를 도와줄 마을기업 25
개를 선정해 밀착 지원한다.
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에
지원할 금액은 총 8억 3700
만원.

사업비는 기업별로 첫해에
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
고, 2년차 연장지원기업에는
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.

· **사업비 신청 전 서울시 지정기관에서 사전교육 필수 이수, 2.3(화)수강신청가능**

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기업·공동체는 신청 전 ‘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 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’ 이 주관하는 사전교육인 씨앗기과정을 이수해야한다.

특히 올해부터는 마을기업들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, 원가분석, 홍보마케팅 등의 과목을 신설했으며, 이외에도 마을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선배 마을기업의 운영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.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교육 수료 후엔 3월 9일(월)부터 3월 13일(금)까지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팀 으로 접수하면 된다.

· **마을기업 안정적 운영가능하도록 지역경제기반확충, 판로지원 사업 본격 추진**

한편 서울시는 올해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시 지역 사회에 안착해 지속적인 운영 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고, 판로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빈틈없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.

